<Room of Love>

Player: 여긴가..?

Love: 이놈아! 빨리빨리 안 다니냐!

Player: 하..할머니??!!

Love: 홀홀홀. 난 제 2문! ‘사랑’이다!

Player: 앗. 그렇지만 그 모습은..

Love: 여긴 너의 마음속! 결국 나 또한 너의 생각의 결집이란다. 사랑의 중심에는 이 모습이 있더구나.

Player: 사랑…..그럼 이곳에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Lover: 그렇지. 근데 여자친구는 있고?

Player: 예? 어.. 없는데요.

Love: 에잉 쯧. 여자친구도 안사귀고 뭐했어 이놈아.

Player: 아잇..그.

Love: 에잉. 준비는 다 됐느냐?

Player: 준비라고 할 것도 없죠 뭐.

Lover: 홀홀홀. 역시 우리 손주구먼

Player: (진짜도 아니면서..)

Lover: 홀홀홀.. 자 그럼

**“사랑이란 무엇인고?”(UI 생겼다 사라지는 느낌)**

홀홀홀…사랑…사랑은 무엇인고?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니? 이 할미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떠오른단다. 흔히들 부성애, 모성애라고 부르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대단하단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지. 절대 그 사랑이 약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 자식은 그 사랑을 먹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사랑을 주며 성장한단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갑자기 굉장한 순발력이나 힘을 발휘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가끔 보이지. 그들의 사랑은 스스로의 육체적 한계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하단다. 자식을 읽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듯이 그 슬픔은 견디기 힘들 정도란다. 그 지극한 마음이 바로 사랑이란다. 그런데 그것만 사랑일까? 모성애 부성애만? 남녀가 서로 깊이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란다.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는 마음도 사랑이란다. 자식을 가슴 깊이 아끼는 것도 사랑이란다. 친우를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란다. 기르던 동물을 쓰다듬는 손길도 사랑이고 화초에 물을 주는 것 또한 사랑이란다. 폭포를 보고 감탄하는 것 또한 사랑이고 거기서 환경을 떠올리는 것 또한 사랑이란다. 사랑은 애정이며 친애이며 우정이며 감탄이며 걱정이며 존경이며 동정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며 사랑이 그 모든 것이란다.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열렬히 좋아한다는 뜻의 사랑이 아닌 더 넓은 시각의 사랑을 인지한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랑이 될 수 있단다. 그것들을 사랑으로 인식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는 꽤나 크단다. 인지하는 순간 세상이 보다 더 따듯하게 느껴질 것이야. 사랑이란 단어에는 그런 힘이 담겨 있거든.

얘야 너의 세상에는 넓은 사랑을 보는 사람들이 있니? 너는 그 사랑을 볼 줄 아니?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본다면, 그 뜻을 이해한다면, 아마 세상은 더 따뜻해지지 않겠니. 홀홀홀, 사랑하렴 얘야. 그저 지극히 사랑하렴. 사랑을 악의로 갚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 분노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아이야 너의 사랑이 지극하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너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으려 한다면, 언젠가 너의 옆에 누군가 서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을 거란다. 그리고 마침내 저 먼 어느 날. 사랑이 욕심을 밀어낸 그 어느 날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니. 홀홀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다.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너도 알지? 이상은 닿지 못할지라도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홀홀홀홀.

Player: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길인 걸요. 사랑하기엔 이 세상은 너무 지독해요! 사람들은 서로를 눌러 서려고 안달이에요! 툭하면 서로를 욕하고 물어뜯어요. 힘을 가진 사람은 마음껏 횡포를 부리고 약한 사람들은 짓밟히면서 더욱 고통받아요. 의로운 사람은 배신자, 바보로 낙인 찍히고 비웃음 당해요. 악한 사람들은 꼭 힘이 있어요. 그들은 의를 짓밟고 승승장구해요.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는 허울뿐인 말이 되었어요. 뜻있는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타락하고요. 빈익빈부익부는 이제 당연한 말처럼 됬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뒤바꿀 환경도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방관할 뿐이에요. 문제를, 부당함을 눈앞에서 봐도 우리는 못본척해요. 꼭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회적 문제도 우리는 회피해요. 눈 가리고 아웅인걸 알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어쩔 수 없잖아요...매일 살기도 바쁜데…나선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아무도 동조도 안해줄 것 같고…아무튼… 너무.... 지독해요..

Love: 홀홀홀….세상이 참 녹록치 않지. 하지만 얘야, 정말 그것뿐이니? 너의 세상은 악의로만 가득하니? 부모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단다. 배 곯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단다. 남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태워가는 사람이 있단다. 누가 미끄러질까 매일 바닥을 쓰는 사람이 있단다.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단다. 친구를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이 있단다. 길에서 물건 파는 노인의 물건을 모조리 사주는 사람이 있단다.

너는 그들의 선의를 어떻게 설명할 거니?

내가 보기엔 너의 세계는 어두운 만큼 또 동시에 너무나 아름답구나….

Player: …

Love: 이제 다시 물으마.. 얘야..너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니?

**플레이어 대답**

Love: 홀홀홀.. 좋구나..

**[검은화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차례구나.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 손주야.

Player: 하..할머니??

**다음 Scene으로**